

제73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8월 9일)

## 분청사기의 장식기법

서유리, 304 · 305호 분청사기 · 백자실 18:00~18:30

14세기, 청자의 질적인 쇠퇴는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구 등의 침입으로 청자 생산지였던 강진 지방의 장인들이 내륙으로 피난하면서 청자 가마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국 각지로 자기의 사용 계층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왕조의 교체와 함께 조선시대 분청사기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청사기란 회청색 바탕흙에 정선된 백토를 발라 분장한 뒤에 유약을 씌워 구운 자기를 이르는 말로,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 준말입니다. 한국 미술사학자 고유섭(1905~1944) 선생이 1930년대 새롭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분청사기는 15~16세기에 걸쳐 약 150년간 만들어졌습니다. 14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제작되어 세종연간(재위1418~1450)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세조연간(재위1455~1468)을 중심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1467년 무렵 경기도 광주廣州에 백자를 생산하는 관요官窯인 분원分院이 설치되면서 분청사기는 자연스럽게 백자로 대체되는 흐름을 맞이했습니다. 백자의 생산과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분청사기는 소멸하였습니다.

분청사기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꾸며졌습니다. 동시에 지방색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기법에 따라 상감象嵌, 인화印花, 박지剝地, 선각線刻(조화), 철화鐵畫, 귀얄, 분장(덧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려의 색이 남아있는 상감기법부터 규칙성이 돋보이는 인화, 자유분방한 철화까지 분청사기의 다채로운 장식기법은 각각의 매력을 뽐냅니다. 분청사기는 새로운 실험과 모색을 시도하면서 자유분방함과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어갔습니다. 특히 귀얄과 분장기법은 우연이 만들어낸 극대화된 효과로 현대적인 감각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투박하고 수더분함이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자와 백자에서 느낄 수 없는 분청사기만의 장식기법과 표현에 오늘날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분청사기의 다양한 장식기법

## 집모양 토기- 살림집일까, 곳간일까?

최경환,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집모양 토기[家形土器]는 실제 집을 본떠 만든 토기로, 신라와 가야의 건물 구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모양은 크게 두 종류, 즉 살림집과 곳간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안은 비어 있고 액체를 담는 굴뚝모양 깔때기와 액체를 따라내는 주둥이가 붙은 형태입니다.

### ○ 대구 현풍 출토 집모양 토기(그림1)

사다리가 있는 출입구 쪽에서 보면 맞배지붕이고, 반대편에서 보면 모임지붕인 집모양 토기입니다. 용마루는 맞배지붕에서 뚜렷하다가 모임지붕으로 갈수록 밋밋해집니다. 지붕면에는 별다른 무늬가 없지만 지붕을 눌러주는 새끼줄 또는 나무틀이 표현되어 있어 이엉이나 나무판자를 엮은 지붕을 묘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기에 대해 살림집으로 보는 의견과 동물 우리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 ○ 창원 다호리 B-1호 무덤 도랑 출토 집모양 토기(그림2)

지붕 부분과 벽체 및 기둥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배형인 지붕에는 가로 2줄, 세로 2줄의 점토 띠가 붙어있어 초가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용마루와 지붕 가장자리 내림마루에 점토 띠가 붙어있습니다.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 도리와 대공 점토 띠가 달렸습니다. 곡물을 보관한 곳간을 본뜬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림1. 대구 현풍 출토 집모양 토기



그림2. 창원 다호리 B-1호 무덤 도랑 출토 집모양 토기와 복원품

제73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8월 9일)

## 어린이박물관 전시체험 ‘도구를 만드는 금속’ 알아보기 -금속마다 달라요-

이민수, 어린이박물관 내 ‘도구를 만드는 금속’ 체험코너 19:00~19:30

문화재는 금속, 흙, 돌, 나무, 종이, 식물 등 다양한 물질 재료로 만들어졌기에 재료의 특징과 성질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그중에 문화재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속 문화재는 주재료인 금속이란 무엇 일까요?

금속은 광석을 채취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광석 속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제련과정을 통해 순수한 상태의 금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용되었던 금속은 구리, 납, 은, 금, 주석, 철, 수은 등 7가지가 있습니다.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는 부드러운 금속일수록 길게 늘어나는 ‘연성’, 얇게 펴지는 ‘전성’, 낮은 온도에서도 녹는 성질 등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들은 금속마다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고 그 성질에 맞추어 각기 다른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속의 어떤 성질 때문에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들을 금속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오래 전부터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금속으로는 금, 은, 철 그리고 청동이 있습니다. 이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문화재에는 어떤 것이 있고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린이박물관 전시체험물 ‘도구를 만드는 금속’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림1. 어린이박물관 전시체험 ‘도구를 만드는 금속’



그림2. 어린이박물관 체험물 ‘청동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 조선시대 어진과 모사

권혁산, 117호 조선 I 실 19:00~19:30

조선왕조시대에는 수많은 초상화가 그려졌고, 그 중에서도 왕의 초상화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화가들이 그린 그림으로 다른 일반 초상화보다 더욱 많이 그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초상화는 활발히 그려졌던 만큼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도 다양했는데, ‘진용’, ‘수용’, ‘영정’, ‘어용’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고, ‘어진’이라는 용어가 현재까지 가장 널리 쓰입니다.

특히 조선의 국조國祖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기록상으로 26본이 있었다고 하고, 태조의 어진을 봉안 하였던 진전眞殿은 전국에 6군데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어진은 단지 몇 점뿐이고, 완형의 태조 어진도 국보 317호(보물 931호에서 승격)로 지정된 <태조 이성계 어진> 뿐입니다.

이러한 어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거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훼손되었을 때 원본을 베껴서 다시 그리게 되는데, 이를 모사模寫라고 합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조선 1실에 전시되어있는 작품의 계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조 재위 때 태조의 명으로 그려짐→영흥 준원전 본, 경주 집경전 본→태조 승하 후, 1410년 모사→전주 경기전 본→1763년 수리→1872년 모사→현재 국보로 정해진 <태조 이성계 어진> 이고, 이 어진을 근래에 모사 한 것이 이 전시품입니다.

어진이 오랜 시간동안 여러 번 모사되었지만 조선 초기의 양식은 거의 그대로 따랐습니다. 왕의 평상시 집무복인 청색 곤룡포는 음영 없이 채색되었고, 왕이 앉는 의자인 어좌는 서양의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려한 양탄자(彩氈)는 마치 벽지처럼 화면 높이 그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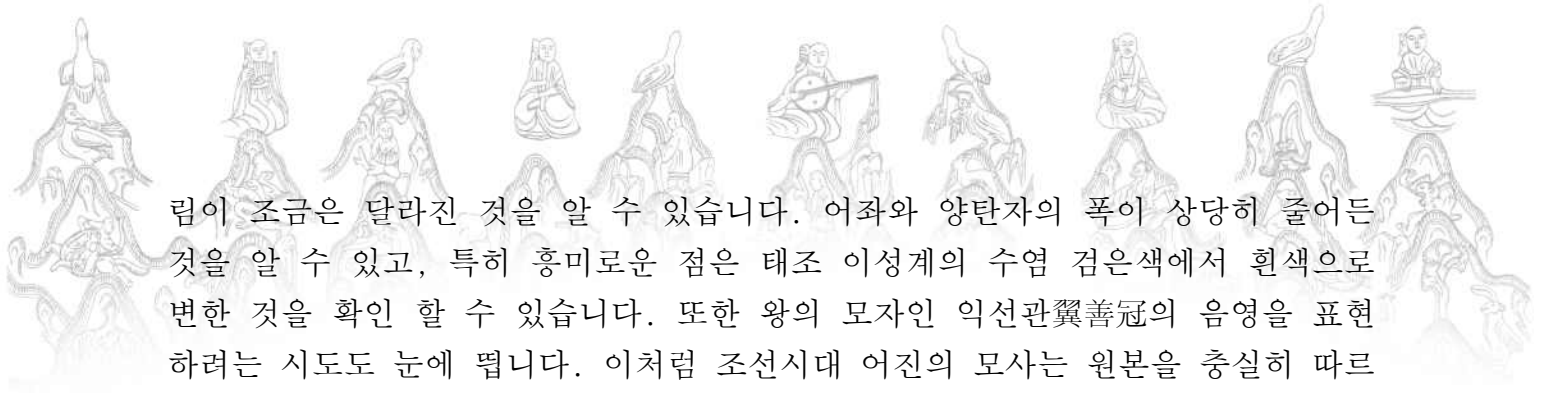
하지만 모사라고 해서 완전히 ‘베껴 그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진으로 남아있는 <영흥 준원전의 태조어진>과 비교해 보면, 그



그림 1. <태조 이성계 어진>



그림 2. <영흥 준원전 태조어진>의 사진



림이 조금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좌와 양탄자의 폭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흥미로운 점은 태조 이성계의 수염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모자인 익선관翼善冠의 음영을 표현하려는 시도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어진의 모사는 원본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시대적 양식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